

부활을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10세기 그레이스

여러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나요?
사실 그것은 100% 거짓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제자인 요한이 그랬을거라고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지켜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무거운 돌을 혼자 옮길수 있죠? 어떻게요?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집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을 본 것은 헛것이라고요. 사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이 음식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같이 드셨죠. 헛것이면 음식이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본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0여명 나 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5000여명이 한 번에 똑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죠?

2주간의 화개캠프의 발자취를 따라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성실반이 화개캠프를 다녀왔습니다. 3월 28일 아침 8시에 학교앞에 모여 출발을 했습니다. 스타렉스를 타고 갔는데요 정성선생님이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의 기분은 무척 들떠있었습니다. 도착 하자마자 개회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는 병상 선생님이 인도해주셨고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을 이들을 자기 스스로 짓게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할 규칙과 식사 당번 등을 정하였습니다. 월요일 점심 식사는 명반도 시락을 먹었는데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저녁에 삼겹살은 무려 6명에서 5kg을 먹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사회, 과학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회 활동은 화개장터까지 쌍개로 또는 화개로를 통해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과학 활동은 펜션주변 식물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천문대에 갔습니다.

수요일에는 농활과 체육활동을 했습니다. 농활은 쉼을 깨고 밭에 있는 검정 비닐을 치었습니다. 체육활동은 축구, 계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배운 내용을 전지에 그려보았습니다. 전지에는 사회, 과학 활동 때 보고 배우며 관찰한 내용을 썼습니다. 이 때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집중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전망대를 갔습니다. 우주센터에서는 우주선과 인공위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는 풍경을 보는데 지층이 보여서 지층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지리산 노고단을 갔습니다. 노고단은 힘들었지만 재밌었기도 했습니다. 노고산을 다녀온 뒤에는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차 월요일인 4월 4일에는 아침 8시에 출발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시화전을 하고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시화전 때 학생들은 대부분 빗꽃을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사회 활동은 통영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화요일에는 순천을 갔습니다. 순천에 가서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갔습니다. 기독교 역사 박물관은 기독교 역사를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울돌목에 갔습니다. 울돌목에서는 화오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다가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기억의 숲에 갔습니다. 그 곳에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니 참 슬펐습니다.

수요일에는 통영을 갔습니다. 통영에서 세병관, 한산도 제승당, 동피랑마을, 해저터널을 가고 루지도 탔습니다. 세병관은 일제감정기에 학교였고 제승당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고 동피랑은 벽화가 예뻐했습니다.

목요일에는 펜션에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나에 대해 알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TI 검사를 하며 나의 성격과 특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나의 장단점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서 자긍심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리경연대회에서는 2명씩 요리를 했습니다. 지수, 세라가 한 조였고, 주로, 다빛이 한 조였고, 한비, 래아가 한 조였습니다. 요리 경연 대회는 한비, 래아 조가 이겼습니다. 모닥불 교제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선생님이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죽식 때에는 선생님들이 학생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정소를 하고 폐회예배를 하며 이로써 화개캠프가 끝났습니다.

인터뷰

Q1. 2주간 화개캠프를 했는데 좋았던건 무엇인가요?

A: 삼겹살 먹은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주호 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있던게 좋았습니다. (마래아, 정지원 학생)

Q2. 2주간 화개캠프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충분히 돌아다녔지만 더 돌아다니지 않았던게 아쉬웠습니다. (이주호 학생)

<14세 장한비 기자>

4월 신나는 현장체험학습

과천국립과학관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



빛과진리학교 진리, 순수, 진실반 학생들이 4월7일에 과천 국립과학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학교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타고 과천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못갔는데 오랜만에 야외로 가는 버스에서 설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과학관에 도착해서는 반별로 따로 흩어져 관람을 하였습니다. 과학관에는 동물분석,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 우주로켓 등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동물 분석은 AI로 자기와 비슷한 동물을 찾아주었습니다.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점점 우주로 올라가는 것처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우주로켓은 영상인데 바람까지 나오면서 우주 로켓을 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2층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돈까스, 우동, 짜장면 등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야외에 있는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오후에는 스페이스 월드와 천체투영관에 가서 관람을 하였습니다. 스페이스 월드에는 우주로 가서 다른 별에 가는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천체투영관은 동형의 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알아보고 영상을 보며 우주의 태양계를 알아보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과학과 우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온온한 기자였습니다.

<11세 온온한 기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려요



4월 22일 금요일 빛과 진리 학교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행적을 돌아보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감사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 해 보았습니다.

1교시에는 경건의 시간을 하고 2교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요약해보면 일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화요일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음모를 꾸몄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학생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교시에는 부활에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지에는 예수님의 일주일에 관한 책 만들기, 단어찾기,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색칠하기 등이있었는데요 활동지를 하며 부활에 관련된 단어나 그림등을 흥미롭게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4교시에는 부활에 관련된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를 했습니다. 그림과 글짓기는 주제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글짓기 주제에는 [a.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이유 3가지 쓰기/ b.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실제로 본 사람이 되어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글 쓰기/ c.오늘 배운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시로 표현하여 쓰기]가 있었습니다. 그림 주제는 [a.예수님의 일주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가지 그리기/ b.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무언을 하고 싶은지 그리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자기가 묵상한 예수님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림과 글짓기가 끝나고 점심 먹기 전 학생들은 꽃 식물 심기를 했습니다. 꽃을 심으며 한 알의 밀알이 심겨 부활의 예수님처럼 멋진 꽃이 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활의 기적을 누리며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책 이야기

정지원. 이주로. 장한비

게으른 꼬봉이에게

정지원

언니가 좋아하는 동화책 한 권 소개해 줄게.
주인공은 아기부엉이 꼬봉이야. 꼬봉이는 날기를 귀찮아 해. 꼬봉이는 들보 위에서 날아서 내려오기 귀찮았어. 그래서 꼬봉이는 큰일이 났다고 동물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며 말, 소, 돼지, 개, 야기양, 오리, 순서로 도움을 받아서 땅에 내려올 수 있었어. 하지만 꼬봉이의 엄마는 이 모든 장면을 숨어서 보고 있었고 이후에 큰 깨달음을 얻게 돼.
처음에 게으른 꼬봉이를 읽었을 때 꼬봉이가 날기 귀찮아서 날려고 해보지 않은 게 잘 이해되지 않았어.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나도 그런 면이 있어서 공감을 했지. 나도 노력을 하지 않고 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코로나 시대라 힘든 점이 많지? 그래도 동생들이 게으르게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생기면 좋겠다.

엄마는 왜 흥당무만 미워해?

장한비

언니가 추천할 책은 흥당무라는 책이야.
흥당무는 엄마와 아빠와 형과 함께 살았는데 빨간머리에 주근깨가 있는 아이였어. 흥당무는 여러 사건을 겪으며 아빠도 엄마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방에 들어와서 울었어. 하지만 곧 가족들과 소통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야.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냥 동화책같이 무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 나랑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나도 엄마가 나한테만 뭐라고 하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 했었어. 이 책에서 흥당무에게 가족들이 미워해서 심부름을 시키고 무뎌둬하게 구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말을 잘 들어서 오히려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었어. 나도 이 책을 읽고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어.

피리부는 사나이가 남긴 것

이주로

내가 추천할 책은 피리부는 사나이야.
옛날에 하멜이라는 마을에 엄청난 쥐떼가 몰려왔어. 쥐 떼는 온 마을의 음식을 다 먹어서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쥐 떼를 없앨 대책을 찾았지. 심각한 분위기 속에 한 명의 사나이가 마을회관에 들어왔는데 그 사나이가 자신감 넘치게 마법의 피리로 없앨 수 있다고 했어. 대신 쥐를 없애는 조건으로 사나이가 천 냥을 달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없애준다면 오천냥도 줄 수 있다고 했다. 다음날 사나이는 피리를 불면서 쥐를 따라오게 해 물에 빠져 죽게 했어.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십냥만 줬어. 사나이는 화가 나서 대가를 치러준다고 하고 어디론가 갔어. 다음날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돌아다니는데 피리는 어린이들만 들리고 어린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나이는 동굴속으로 들어보내고 사라졌고 그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후회를 하며 땅을 쳤다는 내용이야.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사나이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님을 잃게 되니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 또 나는 일상 생활에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적도 있는데,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면 아이들을 잃은 것처럼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

4월의 시

꽃

모소망

꽃은 참 예쁘다
꽃은 봄에 핀다

꽃은
빨강 보라 하양 노랑
여러 가지 색이다

빨간색 꽃은 이름이 뭘까?
내가 이름 지어주어야지
빨강이
좋았어

꽃아 너가 있어 좋아
난 너가 시를 꾸며주니까

꽃의 하루

바울

안녕 나는 꽃이라고 해
나의 하루를 알려줄게

하집에 일어나서
햇살에게 인사하고
비가 오면 채수하고
바람이 오면 친구하고
씨앗이 흩날려

안녕

봄의 선물

최지원

지금은 봄
눈 내리는 봄

눈같이 내리는 벚꽃잎
체리처럼 붉은 이름모를 작은 꽃
시냇가에 같이 빛나는 보라꽃
접시처럼 큰 하얀 꽃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작은 꽃망울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봄이야

꽃이 피었어

장한솔

꽃이 피었어
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려
꽃잎은 흙을 주며 햇살에 비취져
밝게 빛나

꽃잎이 떨어진 땅은
눈에 덮인 듯
새하얀 세상

나보다 더 위 꽃 봉우리들은
피어나는 것이 수줍은 듯
떨지 말지 머뭇거리
하지만 곧 용기를 내서
수줍음을 이겨내

내년의 봄에도
예쁜 꽃이 피길
기다려



4월 빛과진리 학교 소식

1. 김효경 선생님께서 4월 19일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셨습니다. 축하해주세요. 1년간 휴직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복직하실 예정입니다.

2. 5월부터 전아름 선생님이 복직하실 예정입니다. 진리, 성실1,2반 수학과 진리반 담임 선생님을 맡아주십니다. 환영합니다~!!

3.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측정하기 위한 체력검사 측정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악력기, 유연성 측정기, 인바디, 시력검사기, 청력기 등 매년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하여 체력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3. 5월 4일에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어린이 날 기념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거운 날 되도록 응원해주세요. (5월 6일은 재량 휴업일입니다^^)

4. 5월 4일, 5월 11일, 5월 18일 수요일 3주간에 걸쳐 빛과진리교회 본당에서 성경적 성교육 강의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세대를 품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도록 관심 가지고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5. 5월 25일, 27일에 재난 안전 체험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3세 살이 된 성실1반 친구들

초등 검정고시 시험 보고 왔어요

4월 9일 토요일, 빛과진리학교의 성실1반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보고 왔습니다. 다빛, 지수, 래아, 세라 학생이 아침 8시 용강중학교로 출발했습니다. 8시 50분이 되자 각자 고사실로 들어가 시험준비를 했고 9시가 되자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국어와 사회였고 문제는 각각 20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수학, 과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선택과목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선택과목에는 도덕, 체육, 영어, 실과, 미술, 음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봤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열심히 봤습니다. 시험을 다 끝내고 각자 소지품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험은 11시40분에 끝났습니다. 학교 건물 앞에서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빛, 지수, 래아, 세라 학생은 12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계점을 해본 결과 지수 95점, 래아 95점 등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남은 학교생활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터뷰-

Q1. 시험볼 때 기분이 어땠나요? 소감 한 마디해주세요.

세라: 시험볼 때 아무 기분도 안 들었어요. 문제가 어렵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잘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한 것 보다는 잘 봤습니다. 친구들과 같은 반이어서 좋았어요.

래아: 별로 안 틀렸어요. 그냥 아무생각도 없었어요. 사회가 좀 어려웠어요. 생각한것보다는 잘 못봤어요. 친구들과 고사실이 같은반이어서 좋았어요.

다빛: 아니요 그냥 재밌었어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특히 사회는 정말 쉬웠어요. 친구들과 고사실이 붙어서 좋았는데 조금은 집중이 안되는 느낌? 같은게 있었지만 집중이 안되진 않았고 너무 좋았어요.

<13세 정지수 기자>

핑동~자가키트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과진리학교에 4월달에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은 빛과진리학교에 자가키트가 배송이 됐군요. 교육청에서 288개의 자가키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4개씩 받고 있네요. 원래는 이 학교를 싫어하는 분들이 이 학교를 없애라고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이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라고 비난을 했었어요.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라고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승민 선생님이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이 자가 키트를 받았다고 하네요. 승민 선생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아 그리고 자가키트 몇 개는 학교에 두었네요. 누군가 걸리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애후 기자였습니다.

<11세 이애후 기자>

